

Landscape Urbanism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

배정환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Theoretical Terrains and Design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Pae, Jeong-Han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 terrains and design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which is an emerging hybrid field at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Landscape urbanism offers alternative approaches for theory, education, and practice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It views the emergent urban complex sites-post-industrial sites, landfill, brownfield, urban void, etc., not as a weakness, but as a strength. Landscape urbanism poses an understanding of landscape as an el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In this sense, the landscape is see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urban development and public works. As a complex amalgam, landscape urbanism is more than a design style : it is an ethos, an attitude, a way of thinking and acting. We can char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urbanism such as horizontality and surface, infrastructure, process, technique, and ecology. Multi-layered examples of landscape urbanism can be seen in several experimental practices such as works of Rem Koolhaas, MVRDV, Adriaan Geuze/West 8, James Corner, etc. It is possible to summarize the productive strategies for landscape urbanism as follows : thickening, folding, new materials, nonprogrammed use, impermanence, and movement.

Key Words : Landscape Urbanism, Hybrid, Landscape as Urban Infrastructure, Design Strategy, Surface, Process, Landscape Ecology

*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신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330-714, Korea. Tel : +82-41-550-3632, E-mail : jhannpae@dankook.ac.kr

I. 머리말

최근의 조경 세계는 다각도의 변신을 기획하고 있다. 복잡한 지형을 그리며 전개되고 있는 조경의 변화 프로젝트는 “녹색 신화”를 등에 업고 지탱해 온 지난 150년의 현대 조경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삶과 문화의 지평 전반에 역동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조경적 시도의 단면이기도 하다. 이처럼 새로운 좌표를 찾아 나선 동시대 조경의 항로에서 우리는 탈장르화—전통적 영역의 해체, 또는 새로운 영역의 발견—라는 지점을 발견한다. 이를 대변하는 양상이 이 논문에서 주목할 이른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이다.

1990년대 말부터 조경 이론과 교육은 물론 실천의 층위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장르간의 경계를 폐기하고 하이브리드(hybrid)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조경 자체의 대상과 목적과 접근 방식에 교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 도시에서 점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에 대한 대안적 시각과 설계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난제에 대한 해법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번역 자체가 쉽지 않은 이 새로운 영역 또는 대안적 실천 태도가 지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또한 어떠한 지형을 그리며 조경과 접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의 대강을 조감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이론·교육·실천의 축에서 전개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성립 배경을 되짚어봄으로써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반적 지형을 파악하는 부분(II장),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분석하는 부분(III장),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 사례와 설계 전략을 고찰하는 부분(IV장)으로 구성될 이 논문은, 추후의 한층 정교한 이론 구축과 비판적 실천의 발판을 마련한다

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II.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형도

1. 전개 양상

조경(landscape architecture)과 어바니즘(urbanism)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범주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이 공식적으로 처음 채택된 것은 1997년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의 주도로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Landscape Urbanism”이라고 파악된다. 이 심포지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입장에서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할 것”을 선언하는데, 이렇듯 경관을 종래의 회화적·양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건축, 조경, 어바니즘 사이의 전통적 영역 구분이 유예됨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조경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조경의 성과 전반을 해부하기 위해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2001년의 대형 컨퍼런스 “Territories: Contemporary European Landscape Design”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동시대 유럽 조경을 특징짓는 핵심 개념의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Treib, 2001). 2002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주최한 심포지엄 “World Urbanization + Landscape”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진영에 선 최근의 조경은 전원풍 경치의 단일 시점보다는 도시 경관의 수평성과 그 조직의 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다”(Corner, 2002a)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시각과 접근 방식에 따라 기획된 『Stalking Detroit』(Daskalakis et al, 2001)가 출판되었고, 2003년에는 조경과 어바니즘 사이의 새로운 기회와 조건을 검토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실험적 사례를 선보인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echanic Landscape』(Mostafavi & Najle, 2003)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전개 양상과 궤를 이루며 조경 교육 과정과 시스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일리노이대학교 건축대학원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이 개설되었고, 진보적 건축 교육의 대명사적인 영국의 AA 스쿨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Mostafavi & Najle, 2000).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조경학과는 전통적인 학과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주도로 교육 과정과 교수진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교과목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학교가 이 분야와 관련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워싱턴대학교 조경학과는 크리스티나 힐(Kristina Hill)을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있고,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 역시 알렌 버거(Alan Berger)를 영입해 관련 스튜디오와 이론 과목들을 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미국과 유럽만의 현상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레바논의 노트담대학교는 조경, 도시설계, 환경계획을 한데 묶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석사과정을 구축하고 있기까지 하다.¹⁾

그러나 이론과 교육의 층위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경 실천의 영역과 그 대상의 변화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계획과 설계라는 실천의 지형이 변하고 있는 양상에 대응하는 실천적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즉 각종 도시 재개발사업, 포스트인더스트리얼(post-industrial) 사이트, 브라운필드(brownfield), 랜드필(landfill)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태도와 실천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조경진, 200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시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는 아드리안 구즈(Adriaan Geuze)/West 8의 혁신적 작품들을 들 수 있는데(Molinari, 2000), 구즈는 “조경가는 도시설계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새로운 종합적 실천 영역 내로 흡수할 수 있다”(Wall, 1999: 242)는 주장을 다수의 작품을 통해 예증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 리드(Chris Reed)의 StoSS는 전문 실천 분야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임스 코너의 필드 오퍼레이션(Field Operations) 역시 실천의 대상과 전략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찾고 있다(Russell, 2001). 이처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 이론, 실천, 교육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그 폭

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2. 성립 배경 : 현대 도시의 변화

조경과 도시 사이의 새로운 실천 영역이 요청되고 있는 현상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보다도 현대 도시의 변화로 소급된다. 역사적 중심지와 각종 공공 기관이 도시 중앙에 놓이고 그 배후의 넓은 교외 지역이 이를 둘러싸는 형태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다핵화와 거미줄 같은 수평적 확산에 의한 광역 메트로폴리스(regional metropolis)의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메트로폴리스의 다핵 구조는 교통과 운송, 전기, 통신과 커뮤니케이션, 생산, 소비 등으로 겹겹이 중첩된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태적인 정치적·공간적 경계보다 인프라스트럭처와 물질의 흐름(flow)이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 자동차, 상품, 정보의 유입은 역동적인 동시에 일시적인 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러한 때 강조점은 “도시 공간의 ‘형태’로부터 도시화의 ‘프로세스’로 전이”된다. 도시의 경관은 그러한 프로세스의 얼굴이자 뼈대인 셈이다.

도시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낳고 있지만, 계획과 설계에 국한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Wall, 1999: 234~235). 우선, 새로운 유형의 도시 부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주변부 또는 중경(middle landscape)의 특성을 갖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곳은 사실 많은 도시인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반면 과거의 도심은 관광이나 오락 위주의 기능을 충족하는 곳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 변화의 두 번째 영향은 이동과 접근의 팔목할만한 증가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동차 및 교통 수단이 급증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의 증가, 자본과 투자의 불안정성, 풍부한 정보와 미디어 등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의 귀결이기도 한 세 번째 영향은, 형태적 관점에서 도시를 보는 것으로부터 보다 역동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파악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므로 광장이나 공원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 공간의 유형보다는 동시대의 메트로폴리스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흐름, 빈 공간, 모호한 공간 등이 보다 중요한 좌표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²⁾ 나뭇가지처럼 위계적인 구조를 지녔던 전통적인 도시와는 달리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는 마치 불규칙하게 뻗어나가는 뿌리(rhizome)처럼 (Deleuze, 2001) 무한히 확산되고 번져나가며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동시대 도시의 환경 강령은 도시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공원 등과 같은 시설이 종래와 같은 정태적이고 장식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도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고 유도하는 전략적 경관 인프라스트럭처이기를 요청한다. 예컨대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의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사옥 설계에서 볼 수 있는 건축과 경관의 공생은 “도시의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경관”(Bunster-Ossa, 2001 : 2)의 가능성을 보여준다.³⁾

이와 같은 변화와 생성의 상황들을 인정한다면, 설계가와 계획가는 도시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전환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이동성, 유연한 다기능적 표면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설계 전문 분야에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현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 전략이자 조경설계의 21세기적 코드인 것이다.

Ⅲ.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과 주제

1. 잠정적 개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문맥에서 보자면, “경관은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시각에 의존하여 감상하는 그림 같은 전원의 풍경이 아니다.” 이른바 “경관의 재발견”(배정한, 2001)이 갖는 의미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동시대 조경의 첨예한 지점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

관을 사물과 공간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관통하는 역동적 프로세스와 사건을 아우르는 신경 조직과도 같은 매트릭스로 파악한다. 즉 경관은 도시 내 건물 사이의 식재 지역, 주차장, 공원, 녹지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도로와 오픈스페이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는 장(field)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불확정적인 장소로서의 경관을 조절하고 그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전략적 촉매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명료하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통념으로 보자면 서로 무관한 두 용어, 즉 landscape과 urbanism을 결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농촌의 토지 단위 및 전원 풍경화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landscape 개념 및 그 연장선상에 놓이는 조경과, 근대 건축의 오브제 중심적 한계를 반성하며 대두된 urbanism,⁴⁾ 이 두 개념이 공존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다. 하지만 이는, 이를테면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종래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분야가 혼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가는 동시대의 하이브리드적 경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층위와 실천적 지평이 그 종류와 스케일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하이브리드적 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란 단지 경관을 고려하는 도시설계라던가 도시 내 부지를 다루는 조경이 아니라 “조경과 건축과 도시의 사이를 관통하는 혼성의 영역”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관 또는 지형을 건축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조경과의 새로운 합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근의 건축—이를 테면 OMA나 UN Studio를 비롯한 동시대 네덜란드 건축(Lootsma, 2002)—이 여전히 건축 중심적 사고를 전지하는 것과는 달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 중심적 입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조경이 랜드스케이프와 아키텍처의 관계 내에 자리했다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아키텍처의 자리를 어바니즘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도시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진화적인 차원으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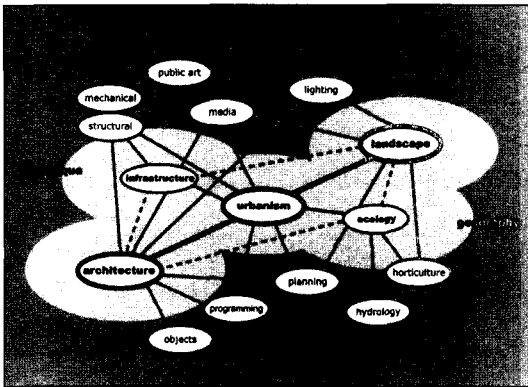


그림 1. landscape urbanism & networked practice
 자료 : www.fieldoperations.net

경의 시야를 확장하는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어떤 특정한 설계 양식이 라기보다는 도시와 경관에 대한 “정신(ethos)이자 태도이며, 동시에 사고와 행동의 방식”(Corner, 2003 : 58)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 영역간의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그림 1 참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단순한 설계의 “~리즘”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설계의 실천 대상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관계이자 태도이며 설계의 구체적인 테크닉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주요 주제

현대 도시의 변화와 그 과정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⁶⁾ 도시와 경관의 불확실성, 비종결성, 혼합성 등과 같은 성격을 강조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수평성”(horizontality)에 주목하며(Corner 2003), 경관의 수평적 “판”(surface)이 수행하는 조건과 상황은 물론 그 물성을 세심히 배려한다(Allen, 1999 : 2002). 대상(object)보다는 장(field)을, 단수보다는 복수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태도는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사회가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유비 관계를 지니기도 한다.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판을 구축하는 일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는 그러한 수평적 판의 분할, 배치, 구성은 물론 그 시스템 속의 공간적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가로지르는 이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된다.

둘째, 앞서서도 검토한 바 있듯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도시의 생성과 진화를 수용하는 장으로,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로 파악한다. 이 때 인프라스트럭처는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토목학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규범, 법규, 정책 등의 비가시적 힘까지도 포괄한다. 미래의 개발과 변화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또한 포함한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보다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열린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는데 비중을 둔다.

셋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 공간의 형태 자체보다는 도시의 시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세스”(process)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형태적 유포피아를 탐색했던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와 경관이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며 무엇을 수행하는가로”(Corner, 2003) 그 강조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 위주의 설계는 기능, 형태, 의미와 같은 종래의 도그마를 극복할 수 있는 화두로 떠올라 최근의 많은 작품들에서 실험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세스 디자인은 “변화를 포용하며 상태의 천이를 예견하는 설계”(Allen, 2002)이며, 설계의 초점을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지원하는 것은 전략적인 “테크닉”(technique)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은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불세출의 거장 한두 명이나 유포피아를 꿈꾸는 마스터보다는 영역간의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조경가, 건축가, 도시설계가, 교통전문가, 토목엔지니어, 예술가, 정책가 등이 연합하게 되면 보다 창의적인 테크닉을 진화시킬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를테면 조경에서 끌어낸 매핑, 모델링, 레이어링, 이식·재배·관리 등과 같은 테크닉이

플래닝, 다이어그램, 구성, 조닝, 마케팅, 분배 등과 같은 도시계획가의 테크닉과 결합되면 보다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테크닉이 구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지향하는 도시의 과정과 역동성은 “생태”(ecology)적이다. 생태학은 모든 생명이 역동적이고 상호 관련되는 과정으로 묶여 있음을 전해 준다. 도시와 경관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층위의 상호 관계성과 역동적인 진행 과정은 숲이나 강과 다를 바 없이 생태적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경관은 유연한 시스템 속에서 변화하고 이동하는 생태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인간의 삶의 공간적·시각적 총체의 모자이크”로 파악하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의 입장과 넓은 면적의 공통분모를 갖는다(Shane, 2003/04). 예컨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주목하는 “이동”은 경관생태학의 기본 개념인 “매트릭스”(matrix)와, “연결”은 “코리도”(corridor)와, “교환”은 “패치”(patch)와 함수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IV.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사례와 설계 전략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부지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재개발,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계획,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랜드필·브라운필드 등 도시의 새로운 유형의 토지에 대한 계획과 설계, 기존의 도시 맥락을 다시 연결하고 통합하는 계획과 설계 등에서 빈번히 목격된다. 이러한 경우, 형태 중심적 설계보다는 도시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몇 작가와 작품을 통해 그 설계 전략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렘 콜하스의 “뉴 어바니즘”(Koolhaas, 1995)은 유토피아적 이상에 매몰된 모더니즘 도시계획과 건축의 한계를 직시하고 “도시란 변화하는 곳이며 그 속의 삶 또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고한 질서를 통해 도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

다”는 비판에 기초를 둔다.⁷⁾ 도시와 건축의 대안적 좌표를 기획하고 있는 그와 OMA의 실험은 건축과 조경과 어바니즘의 영역을 넘나들며 도시의 혼돈과 불확정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선보여 왔다. 콜하스의 도시관과 전략은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라빌레트파크(*Parc de la Villette*) 설계경기 제출안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형태의 구성이나 재현보다는 공간의 전략적 조직에 비중을 두고 무수히 변화될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는데, 상호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될 수 있는 네 개의 전략적 층위(layer)를 통해 “사회적 도구로서의 경관” 골격을 짜고자 했던 것이다.

20세기말의 도시 건축과 조경에 큰 여파를 가져 온 라빌레트파크의 유연한(flexible) 계획은 프랑스 메롱-세나르(*Melun-Senart*) 신도시 계획에서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을 도(figure)에, 오픈 스페이스를 지(ground)에 대응시키는 관계적인 접근 방식을 뒤바꿈으로써 건물의 계획과 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닌 빈 공간(void)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과 진화를 담을 수 있는 미결정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공간의 잠재력을 통합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우선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콜하스의 전략적 디자인은 최근의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국제설계경기 당선작인 트리시티(*Tree City*)에서 절정에 달한다(Czerniak, 2001). 트리시티(그림 2 참조)는 도시와 공



그림 2. Rem Koolhaas, *Tree City*, Downsview Park, model
자료: 필자 촬영 사진



그림 3. MVRDV, *Villa VPRO*
자료: Lootsma, 2002 : 122

원의 경계를 파기하고, 공원을 통한 도시의 성장, 즉 도시가 공원이고 공원이 도시라는 전략을 디자인하고 있다(배정환, 2002).

건축, 조경, 어바니즘의 하이브리드를 실천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MVRDV는 이동성, 순간성, 일시성으로 규정되는 현대 도시를 “가벼운 어바니즘(Light Urbanism)”이라는 개념적 골격에 놓고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 등과 같은 도구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밀도와 관계와 흐름에 주목하는 MVRDV의 도시 프로젝트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념을 구체적인 이론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MVRDV, 1998 : 1999). 특히 빌라 브이피알오(*Villa VPRO*)는 MVRDV의 리서치 프로젝트가 실제의 대상지에서 건축과 조경의 공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현대 메트로폴리스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이동성과 접근성은 도로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에 역동적인 집합과 분산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통합적 설계는 원활한 도시 기능 형성과 전략적 경관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교통과 수송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자 도시의 지배적인 경관 요소인 것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벌이며 이른바 “바르셀로나 스타일”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을 개발해 온 스페인에서 우리는 다양한 실천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특히 요셉 안토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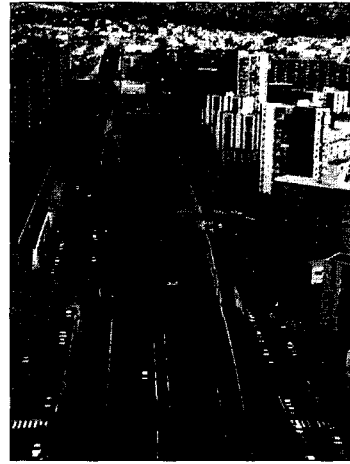


그림 4. Acebillo, *Ronda de Dalt*
자료: Cerver, 1999 : 23

아세비요(Josep Antonio Acebillo) 등이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론다 데 달트(*Ronda de Dalt*)는 도로를 정주의 구성 요소로, 건축과 조경의 영역으로 복원시킨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Cerver, 1999: 11-28). 이 도로의 설계는 자동차의 최대 통과보다는 주변 교통 네트워크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한 최대의 집합·분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도로 설계와 인근 지역에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그림 4 참조). 특히 인터체인지 주변의 도시 공간을 새로운 유형의 경관 인프라스트럭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도로와 상호 결합시켜 설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접근성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설계를 독해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아드리안 구즈가 이끄는 West 8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조경의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큰 스케일을 다루는 전략적 사고에 탁월한 구즈는 주어진 부지의 도시적 문제를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와 사건의 생성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발표해 왔다. 도시 내의 공간을 다룰 경우, 그는 과도한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비워두기(emptiness)의 전략을 채택하곤 한다. 콜하스의 빈 공간(void) 개념을 연상시키는 구즈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인(urbanite)은 새로운 경관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장소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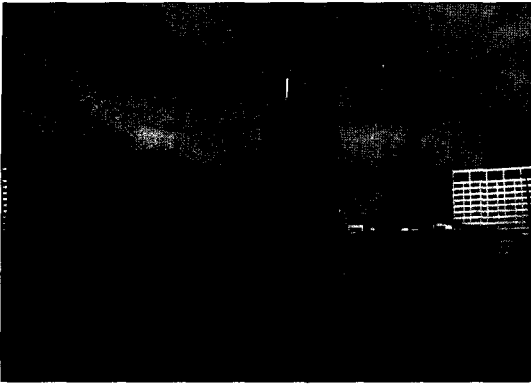


그림 5. Adriaan Geuze/West 8, *Schouwburgplein*
자료: 필자 촬영 사진

에 토대를 두고 있다(Molinari, 2000). 그러므로 아주 단순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건과 행위를 수용하고 생성시킬 수 있는 세심한 디자인이 도출된다. 널리 알려진 로텔담의 쇼우부르흐광장(*Schouwburgplein*)이 그 단적인 예이다(그림 5 참조).⁸⁾ 지하주차장 위의 광장, 경량의 금속 패널과 목재로 바닥을 처리한 이 극장 앞마당 위엔 돛대를 연상시키는 크레인 모양의 조명시설 4개—동전을 투입하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외에는 별다른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스스로 펜스나 천막을 치기도 하고 지붕을 씌우기도 하며 다양한 사건을 만들어간다. 쇼우부르흐광장은 매일 새로운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루 중에도 여러 다른 얼굴로 변신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실천적 거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임스 코너의 활동과 그의 작품일 것이다. 다운스부파크 국제설계경기의 결선작 중 하나인 생성의 생태계(*Emergent Ecologies*)에서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공간의 자생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 코너와 그가 이끄는 필드 오퍼레이션(Field Operations)는, 프레쉬 킬스 매립지 공원화 설계경기(*Fresh Kills: Landfill to Landscape Design Competition*)의 우승작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를 통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최전선을 확인하게 해 준다(정옥주, 2002; Corner, 2002b). 라이프스케이프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매핑, 디지털 몽티쥬, 레이어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계 미디어와 테크닉의 실험이라



그림 6. James Corner, *Lifescape*, Freshkills, model
자료: Field Operations 제공

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그림 6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조경과 어바니즘 사이의 다양한 도시 프로젝트들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차원의 조정 설계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두껍게하기(thickening), 접기(folding), 새로운 재료(new materials), 프로그램 없는 이용(nonprogrammed use), 일시성(impermanence), 이동(movement) 등(Wall, 1999: 244-246)과 같은 전략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쇼우부르흐광장은 다층화된 표면이 만들어내는 “두껍게 하기” 전략을 통해 배수, 구조, 설비 등의 테크놀로지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광장의 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램프, 다리 등의 장치를 통한 다층의 공간 형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이동은 제한적인 공간을 두껍게 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연속성과 생동감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접기” 전략은 표면을 자르고 싸고 접음으로써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결해 준다. 또한 접기는 다양한 레벨로 넘실거리며 겹쳐지는 디자인을 통해 용도별로 공간을 분리해 온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이동의 흐름을 조절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위에서 사례로 다루지는 않은 FOA(Foreign Office Architects)의 요코하마 항만터미널(*Yokohama Port Terminal*) 계획(그림 7 참조)을 접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FOA, 1995). 전통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선호되어 왔던 재료 외에, 고무 타이어, 목재, 경량 금속, 각종 합성 소재 등의 “새로운 재료”는 공원과 같은 도시 공간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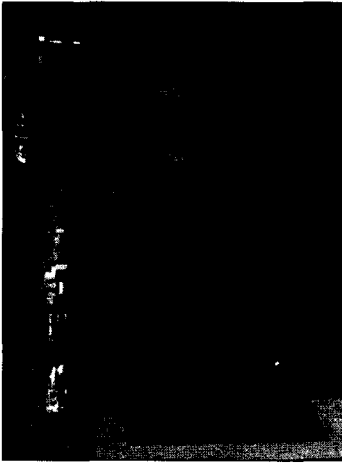


그림 7. FOA, Yokohama Port Terminal
자료: www.f-o-a.net

하게 하는 매우 현실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주어진 표면을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제어하기보다는 다양한 기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전략인 “프로그램 없는 이용”은 일상적 삶의 양상에 충실한 설계 언어가 될 수 있는데, 렘 콜하스의 빈 공간 개념이나 아드리안 구즈의 비워두기 설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불안정성과 가변성으로 대표되는 도시 공간에 “일시성”의 전략을 대입하는 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자 미래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골격의 역할을 할 수 있다.⁹⁾ 마지막으로, “이동”을 고려하는 전략은 이동성의 증가로 대변되는 현대 도시의 유희민적 삶과 역동적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21세기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도로와 같은 이동 인프라스트럭처를 재편하고 디자인하는 일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복합적 과정의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V. 맺음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의의와 가능성

이상에서 조감해 본 바와 같이, 건축과 조경과 어바니즘의 교차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잠정적 이름을 단 새로운 영역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은 단일한 평면 위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자체가 혼성적이고 역설적이며

복합적인 지점에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¹⁰⁾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이론적·실천적 영역의 가능성을 면밀히 해석하고 동시대 조경의 전략적 거점으로 검토해야 할 숙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과제에 접속하고자 한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몇 가지 가능성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1세기적 하이브리드 문화의 조경적 반영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조경과 건축과 도시가 혼합된 이 새로운 영역에서 조경가는 유연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역간의 네트워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경을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일 수도 있다. 150년 전, landscape에 architecture를 더해서 태어난 전문업 조경이 architecture의 자리를 urbanism으로 대체시키며 대안적 영토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세계적 도시화(urbanization)에 대응하는 조경적 전략이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조경은 전통적으로 반도시적 가치를 지향하며 자연의 신화에 의지해 왔다. 하지만 조경은 도시를 모태로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역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도시가 마치 생명체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고 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조경의 초점은 도시로 수렴되지 않을 수 없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도시를 재편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점증하고 있는 도시 내의 새로운 부지 유형들—즉 각종 재개발 지역,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 랜드필, 브라운필드, 자투리땅 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자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종 도심 재개발 사업, 도로·교량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사업, 공장 이적지 공원화사업, 선유도공원·평화의 공원·청계천 복원·서울숲 등 새로운 설계 전략을 요청하는 프로젝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상통하는 대안적 설계 방법과 태도가 실험되고 있다.¹¹⁾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도시 공간의 혼란한 현실을 오히려

조경의 이념과 테크닉으로 교정할 수 있는 호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그러한 교정의 이론적·실천적 틀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 주 1. 다음을 참조할 것. www.ndu.edu/lb/academics/faculties/faad/archdep/malandscape.html.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특집 주제로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슬로베니아의 건축 저널 *Arhitektov Bilten*은 이미 1998년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위주로 한 조경(*krajinjska arhitecture*) 특집을 다룬 바 있다. www.ab-magazine.com/139-140.html
- 주 2. 본 논문의 IV장에서 다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작품 사례들은 이러한 도시 변화의 특징과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주 3.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조경가 허버트 드리세이트(Herbert Dreiseitl)이 설계한 다임러-크라이슬러 빌딩과 그 주변 외부 공간은 물의 생태학적 처리를 통해 주변 경관을 통합하고 있다. 즉 우수 처리를 생태적 테크놀러지로 해결함과 동시에 오픈스페이스 설계의 기본적 주제로 삼음으로써 주변 도시 맥락을 재조정하는 시각적 연출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 주 4. 이 때의 어바니즘은 도시사회학에서 '도시성'으로 번역하는 어바니즘—즉 20세기의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이 경우의 어바니즘은 건축을 하나의 오브제로 파악한 근대 건축을 비판하고 건축과 도시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건축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 어바니즘이 "도시건축"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으나 "도시 내의 건축"과 의미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번역어라고 보기는 힘들다.
- 주 5. 본 논문에서 *landscape urbanism*의 번역어를 구하지 않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표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관행에 따라 랜드스케이프를 경관으로, 어바니즘을 도시건축으로 번역하여 두 개념어를 평면적으로 결합시킨 용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진화적 특성, 하이브리드적 성격 등을 담아내기에 큰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경우의 랜드스케이프는 기존의 경치 위주의 경관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landscape*에 경관을 대입시키기 곤란하다.
- 주 6.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reactive) 실천적 전략이자, 새로운 조망의 틀로 변화하는 현대 도시의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파악하려는 (pro-active) 이론적 전략이라는 양면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주 7. 렘 콜하스가 말하는 이 경우의 "뉴 어바니즘"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 및 커뮤니티의 제반 문제를 도시의 환경계획 및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모여 추창하기 시작한 뉴 어바니즘 운동과 구별된다. 1993년의 뉴 어바니즘 협회 결성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뉴 어바니즘 운동은 전원도시운동과 도시미운동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적 척도에 맞는 도시, 보행자 우선의 도시, 친환경적 도시 등에 주목하고 있다(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2003). 뉴 어바니즘 운동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도 교집합을 가지지만, 새로운 도시적 삶의 내용을 전원에서 찾자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주 8. 2003년의 서울시청앞 광장 설계경기의 출품작 다수는 이슈우부르호광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 주 9. 물론 "프로그램 없는 이용"이나 "일시성"과 같은 설계 전략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고유의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주목하는 현대 도시의 변화와 그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설계 전략의 일환으로 동원되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 주 10.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도 없다. 예컨대 도시의 공간적 문제와 결례를 이루는 사회 정의의 문제와 같은 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시선과 교차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와 같은 교점을 갈구하는 입장은 오히려 건축과 도시계획을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실패한 모더니즘 거장들의 부활을 기도하는 일일뿐이다.
- 주 11.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즉 최근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조경과 조명, 조경과 환경디자인, 조경과 생태·환경복원 등의 하이브리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는 차이를 나타낸다는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섬세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인용문헌

- 배정환(2001) 동시대 조경 이론과 설계의 지형 (3) : 경관의 재발견. *환경과 조경* 157: 62-67.
- 배정환(2002)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2003) Charter of the New Urbanism. 안건혁·온영태(역), 뉴 어바니즘 헌장.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옥주(2002) 쓰레기 더미의 꿈: 프레쉬킬스 국제설계경기 후기. *환경과 조경* 167: 84-89.
- 조경진(2001) 도시 속의 경관: 변화하는 의미와 그 새로운 가능성. *이상건축* 112: 169-173.
- Allen, S.(1999) *Infrastructural Urbanism, in Points+Lines: Diagrams and Projects for the City*.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46-57.
- Allen, S.(2002) *Landscape to Architecture / Architecture to Landscape*. Columbia University GSAP Newslines 03.01.
- Bunster-Ossa, I.(2001) *Landscape Urbanism*. *Urban Land* July 01: 1-8.
- Cerver, F. A.(1999) *Urbanismo 3: Road Systems*. Barcelona: Axis Books.
- Corner, J.(2002a) *Introductory Remarks*. *World Urbanization+Landscape Symposi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orner, J.(2002b) *Landscape: Fresh Kills Reserve*. *Praxis 4-Landscapes*: 18-27.
-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ed. Mohen

- Mostafavi and Ciro Najle, London : AA Publications, pp. 58-63.
13. Czerniak, J, ed.(2001) Case: Downsview Park Toronto, Munich : Prestel Verlag.
 14. Daskalakis, G., C. Waldheim, and J. Young, eds.(2001) Stalking Detroit, Barcelona : ACTAR.
 15. Deleuze, G., and F. Guattari(2001) Rhizome in Thousand Plateaus. 김재인(역), 천개의 고원. 서울 : 새물결.
 16. FOA(1995) Yokohama Port Terminal Competition, AA Files 29: 17-21.
 17. Koolhaas, R.(1995) "What Ever Happened to Urbanism" in S.M.L,XL, New York: Monacelli Press, 1995, pp.959-71.
 18. Lootsma, B.(2002) SuperDutch : New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London : Thames & Hudson.
 19. Molinari, L.(2000) West 8, Milano : Skira.
 20. Mostafavi, M., and C. Najle(2000) Urbanism as Landscape? AA Files 42: 44-47.
 21. Mostafavi, M., and C. Najle, eds.(2003) Landscape Urbanism :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 AA Publications.
 22. MVRDV(1998) FARMAX, Rotterdam : 010 Publishers.
 23. MVRDV(1999) Meta City/Data Town, Rotterdam : 010 Publishers.
 24. Russell, J. S.(2001) Landscape Urbanism: It's the Future, Not a Contradiction, Architectural Record 189(8): 66-74.
 25. Shane, G. (2003/2004)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Harvard Design Magazine 19.
 26. Treib, M.(2001) Viewed Across the Sea : European Landscape Architecture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Territories : European Landscape Design, A Conference held at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April 19-21.
 27. Wall, A.(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ed. James Corner,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33-249.
 28. www.ab-magazine.com/139-140.html
 29. www.ndu.edu/lb/academics/faculties/faad/archdep/malandscape.html.

원 고 접 수 : 2003년 12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3월 8일

3인인명 심사필